

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(8.20)

-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 우리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*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**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
 - * 반도체 역대 월 수출 순위(억달러) : 1위448('26.6월) → 2위410('26.7월) → 3위372('26.5월)
 - ** '26년 성장전망(%): (KDI) '26.5월2.5→'26.8월3.2, (IMF)'26.4월1.9→'26.7월2.6, (OECD)'26.3월1.7→'26.6월2.6
- 그러나, 이러한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.
 - 첫째, 성장의 온기가 우리 경제 공동체의 구석구석까지 미쳐야 합니다.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, 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.
 - 둘째, 대체불가한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.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, 노동개혁 등 구조혁신,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.
 - 모두의 성장일 때만 개혁을 품을 수 있고, 과감한 개혁을 할 때에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.
-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가 보유한 자산 역시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.
 - 특히 2025년말 기준 1,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은 그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- 이에 정부는 '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정책목표를 “국유재산의 가치·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창출 및 국민 환원”으로 설정했습니다.
- 먼저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내외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.

-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현행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, 민간 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,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대부*, 민간금융기법 활용으로 자산가치를 높이겠습니다.

* 국가가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을 장기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추진

- '27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약 200개소 개발을 추진하고, 뉴욕, 하노이, 멕시코시티, 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개소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*을 추진하겠습니다.

* 재외공관 문화원 기타 공공기관 입주시설 통합개발 → 현재 뉴욕, 멕시코시티, 하노이 추진중

-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출자기관 지분, 비상장 물납주식 등 금융성 국유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20조원 출자를 통해 미래성장에 기여하고, 투자수익은 배당받는 등 국부를 축적하겠습니다.

- 다음으로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노인, 청년, 사회적 기업 등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모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·신혼부부 공공주택 28만호 건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, 설계,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여 '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.

- 세대별 주거지원을 위해 서울 구로,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약 2천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.

-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하여 노인, 청년, 사회적 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,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.

□ 국유재산을 활용한 전략산업 지원 등 미래성장 및 지속 가능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.

○ AI,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사용료 감경 등 국유 재산특례 지원을 강화하고,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통해 자체 부담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특례를 정비하겠습니다.

○ 재정경제부와 산림청간 상호 국유재산 이관을 통해 보전 필요성이 높은 재산은 산림보전에 활용하고,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용에 지원하겠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반으로 국유재산 총괄청 중심의 관리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

○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, 국가자산 DB 및 AI 자산관리 모델을 구축·활용하여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.

○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올해부터 3년간 총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고,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변상금 요율을 현행 120%에서 최대 200%로 상향하겠습니다.

○ 국유재산 개발 현장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국유 재산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, AI 위험성평가, AI기술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.

□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자산입니다.

앞으로도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,
그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